# OM SHIPS International
# *Newsletter 57*

**박필훈 장미애 선교사 기도소식**

**(2021 년 12 월 20 일)**

'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' 사도행전 **8:8**

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큰 기쁨도 있음을 확인합니다. 기쁠 일이 별로 없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.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때 성안에 큰 기쁨도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.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성안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지난 **2021** 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움중에도 작고 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성탄의 계절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삶가운데 넘쳐 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
**기도제목 1 : 선교 동역자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큰 기쁨이 넘치는 성탄과 연말연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**



## 기도응답의 현장

지난 12 월 4 일부터 13 일까지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(Sierra Leone), 프리타운(Freetown)에 정박중인 로고스호프를 다녀왔습니다. 오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풍성한 은혜와 기도응답의 현장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. 공항에서부터 선교선에 도착까지 5 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새벽 1 시에 도착해보니 물 부족으로 샤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다음 날 프리타운 시내를 나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빈곤의 상황을 접하며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삶들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기도해 왔던 40 여명의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이 선상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선교선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
**기도제목 2 : 40 여명의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이 초심을 유지하며 선교선 생활과 사역에 적응하며 선교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성장되게하여 주시옵소서.**

오엠국제선교선 리더십 회의

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엠국제선교선 리더십이 로고스호프 선교선 선상에서 대면 모임으로 리더십 회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이번 모임에는 로고스호프의 리더십팀들도 함께 하여 선교선 전체 사역에 올 한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의 전략적 비전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울러 로고스호프의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질의 응답의 시간을 통해 더 긴밀한 소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로고스호프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서부 아프리카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. 로고스호프는 시에라리온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나를 향해 항해 중입니다.




**기도제목 3 :** 오엠선교선의 리더십팀이 주님의 뜻과 시대를 잘 분별하여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로고스호프의 계속되는 서부 아프리카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



## 로고스호프의 한국인 사역자들

로고스호프에는 현재 **11** 명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승선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. 부서에서의 맡은 사역은 물론이고 찬양 인도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인 사역자들이 계속하여 로고스호프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
**기도제목 4 :** 로고스호프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며 선상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

## 워싱턴 여는교회의 플로렌스 방문

지난 11 월 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워싱턴 여는교회의 조상명 목사님과 강소진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플로렌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. 마치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것 처럼 느껴졌는데 오시는 길에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냉장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.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이 느껴지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었고 더욱 감사한 것은 서로의 상황과 간증을 나누며 영적인 격려와 힘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미국 행정의 중심지인 워싱턴 DC 지역의 젊은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고 선교적으로 쓰임 받는 비전을 향해 섬기고 계시는 조상명 목사님과 워싱턴 여는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